

Overweight

로보틱스 (Overweight)

Unitree Robots 상장과 코스닥 반등은 별개

8/20 전후 Unitree Robots 상장 예정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Unitree Robots 상장이 8/20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다 (08.06 공모가 확정 및 08.10 청약 시작). 공모가의 경우 150.8위안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약 610억위안이다. (한화 12.8조원, 8/11 증가 기준 UBITEC 9.6조원, 레인보우로보틱스 9.3조원, 두산로보틱스 4.8조원). Unitree Robots 청약 배정 비율은 0.018% (CXMT 0.47%, 무어스레드 0.036%, 청약 신청 주식 수 대비 실제 배정 비율: 해당 값이 낮을수록 경쟁 높음)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관심이 높다. Tesla Optimus 관련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Unitree Robots 상장은 이를 대체할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은 Unitree Robots 상장이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또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Unitree Robots 상장에 대한 우려 (1): 국내 업체의 성장성 비교 열위

첫째, Unitree Robots 대비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의 국내 휴머노이드 업체의 성장성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25년 Unitree Robots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 3,560억원 (+332.6% YoY), 583억원 (+191.4% YoY)를 기록했고, 이 중 51%가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25년 매출액 341억원 (+76.8% YoY), 영업이익 -25억원 (적자 지속) 등의 실적을 기록했고, 100대 내외의 RB-Y1 (차륜형 휴머노이드) 공급 정도를 제외하면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 전무했다는 이유이다.

단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단순히 휴머노이드 업체라는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약 35%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보유 중이고, 그렇기에 시장은 레인보우로보틱스에게 삼성전자형 캡티브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히려 뚜렷한 캡티브 매출처가 없는 Unitree Robots의 경우 향후 경쟁 심화 국면에서 성장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5년 Unitree Robots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 중 74%가 연구개발용 제품인데, 이는 대량 주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 삼성전자 및 그룹 단위에서의 휴머노이드 개발이 시작된지 약 1년이 지났고, 이에 그룹사로의 캡티브 휴머노이드 제품 공급이 곧 이뤄질 수 있다.

Unitree Robots 상장에 대한 우려 (2): 잠재적 국내 업체의 경쟁 상대

둘째,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의 잠재적 경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CXMT 상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국내 메모리 업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었던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2025년 기준 글로벌 청소용 로봇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 68%이다. 이외에도 중국 관련 업체들은 서빙용 로봇 등의 기존 서비스 로봇 시장을 사실상 선점했다. 이렇다 보니 Unitree Robots의 외연 확대를 국내 관련 업체 경쟁력 약화로 연결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Unitree Robots를 포함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은 이미 원천 차단되고 있다. 지난 06.08 미국 국방부는 Unitree Robots를 CMC (Chinese Military Company, 중국 군민 융합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를 관리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리스트에 등재했다. 이에 Unitree Robots 관련 제품들은 미국 국방부로 일체 공급될 수가 없고, 추후 민간 사업에서의 규제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08.06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또한 해외에서 생산된 4축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 제품 수입 일체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음 장에 계속).

Unitree Robots은 현재 미국에 판매 중인 G1, H1 등의 제품이 이미 FCC의 Equipment Authorization (예외적으로 외국 생산 제품의 미국 판매를 허가하는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26.08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4족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에 있어 Equipment Authorization 관련 절차를 관장하는 부처는 국방부이기에, 사실상 관련 인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 Unitree Robots을 포함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오히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과 같이 Equipment Authorization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 휴머노이드 업체 및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가능하다.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을 위해 필요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추가 상승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는 8월 들어 약 19% 상승했다. 8/11 증가 기준 국내 로보틱스 산업 시가 총액은 33.2조원 수준이다. 23.01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투자가 이뤄지기 직전 3.5조원에 불과했던 섹터 시가총액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다. 섹터의 몸집이 커짐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 내 패시브 수급의 영향이 확대되며 코스닥 지수와 국내 로보틱스 산업은 동조성을 띄고 있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 8월 수익률 18.3%). 26.2H 코스닥 부양책 및 국민성장펀드 등 코스닥 지수 반등의 근거는 충분하기에, 코스닥 지수와 동행하는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하방은 안정적일 것이다. 단 바이오, 소부장 등 코스닥 내 타 업종 대비 국내 로보틱스 산업이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로보틱스 산업이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결국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상승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Unitree Robots 상장, 삼성전자의 독자 휴머노이드 개발설 등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둘러싼 루머가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상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07.21 삼성전자가 RX 사업실을 출범한 것을 두고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배제하고 삼성전자가 직접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는 4족보행로봇과 물류로봇만을 판매하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Unitree Robots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연결되곤 한다. 그러나 아직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자체 개발을 논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RX 사업실의 역할은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 인력을 한데 모으고,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컨트롤 타워이기에 이를 레인보우로보틱스 패싱의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 삼성전자가 23.01, 23.03 두 차례의 유상증자와 25.01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3,5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미래로봇추진단, 삼성리서치 등 기존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조직에 이미 상당수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원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파악된다. 아직 양사간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명분은 많지 않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 투자 의견 Overweight 유지

당사는 제시하는 26.2H 국내 로보틱스 산업 투자 전략은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제품 양산 및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 선별'이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 내 단기 모멘텀에 근거하거나 휴머노이드 산업 노출도가 사실상 전무한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CES 2027 이전까지 주요 업체별 공급망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 공급망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oston Dynamics): 현대모비스, 삼현, **로보티즈**, **한국피아이엠**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피지

(LG전자): **로보티즈**, 에스피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선도 업체): HL만도, **로보티즈** **한국피아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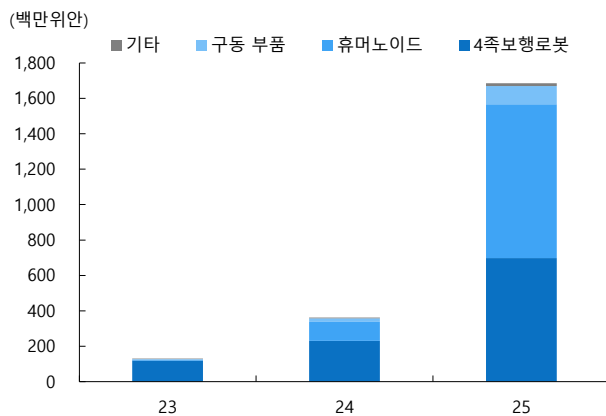
그림1. Unitree Robots 상장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장 시장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
상장 예정일	청약 절차 진행 중 (08.10~). 일반적인 경우 청약 종료 2주 후 상장이 이뤄지기에 08.20 전후로 상장 예상
공모 규모	신주 약 4,040만주 (총 주식수 대비 10%). 공모가 주당 150.8위안
조달금액	약 61억위안 (1.3조원). 당초 거론된 42억위안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
예상 시가총액	확정 공모가 기준 약 609.9억위안 (12.8조원)
주주 구성	왕싱싱 23.8%, 메이탄 SPV 7.6%, 세쿼이아차이나 6.2%
자금 사용 목적	휴머노이드용 소프트웨어 20.2억위안, 하드웨어 개발 11.1억위안, 신제품 개발 4.4억위안, 생산 시설 6.2억위안

08.10 이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줌에 따라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13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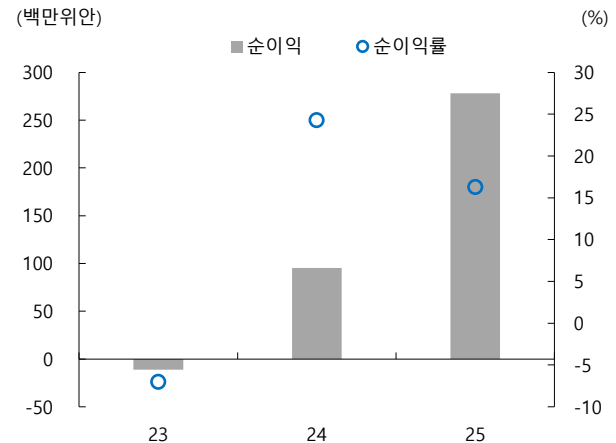
자료: Unitree Robot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Unitree Robots 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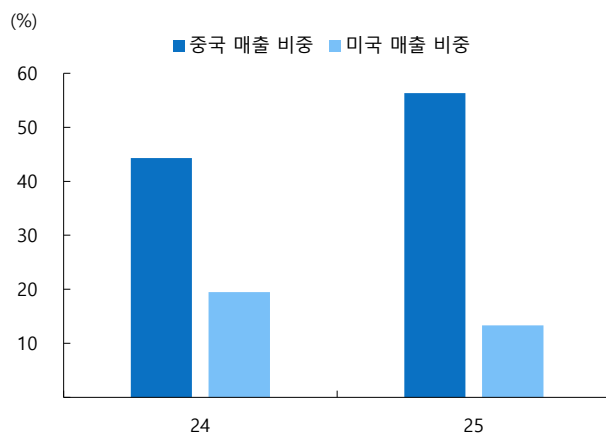
자료: Unitree Robot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Unitree Robots 순이익 및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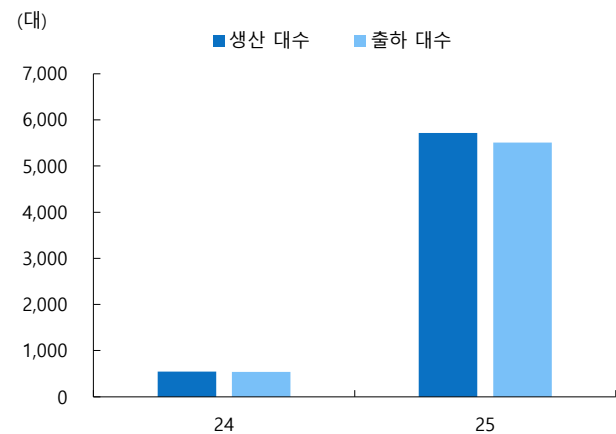
자료: Unitree Robot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Unitree Robots 중국 및 미국 매출 비중



자료: Unitree Robot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Unitree Robots 생산 및 출하 대수



자료: Unitree Robot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4족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 제품을 Covered List에 편입: FCC의 별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 수입 허용



FACT SHEET: FCC Updates Covered List to Include Foreign-Produced Advanced Robotic Devices and Power Inverters

Update Follows Determination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That These Devices Threaten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July 28, 2026—Toda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pdated](#) its [Covered List](#) to include two new categories of devices—"advanced robotic devices" (defined as mobile robots, such as humanoids and quadrupeds) and, separately, connected power inverters produced in foreign countries. The action follows determinations, for both [robots](#) and [inverters](#), by a White House-convened Executive Branch interagency body with appropriate national security expertise, which determined that these foreign-made product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origin, "pose unacceptable risks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United States persons."

In their determinations, national security agencies referenced, among other things, unacceptable risks, including that these devices could create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that could disrupt U.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nd could create a cybersecurity risk that threatened American critical infrastructure.

The determination included an exemption for advanced robotics devices and power inverters that the Department of War (DoW) or (in the case of power inverter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have granted "Conditional Approval" after finding that such device or class of devices do not pose such unacceptable risks. Producers of advanced robotics devices and power inverters are encouraged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Conditional Approval using the guidance for [advanced robotics devices](#) and [power inverters](#) attached to the determination. Applications should be submitted to conditional-approvals@fcc.gov.

As outlined below, today's action does not impact a consumer's continued use of devices they previously acquired. Nor does it prevent retailers from continuing to sell, import, or market relevant models approved previously through the FCC's equipment authorization process. By operation of the FCC's Covered List rules, the restrictions imposed today apply to new device models. It also does not impact purchase or use by the federal government at all.

Chairman Carr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I welcome these Executive Branch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s, and I am pleased that the FCC has now added foreign produced advanced robotics and power inverters to the FCC's Covered List. Following President Trump's leadership, the FCC will continue to do our part to secure America's critical supply chains and, with today's action, the FCC is acting in lock step with our national security agencies to do just that."

자료: 미국연방통신위원회,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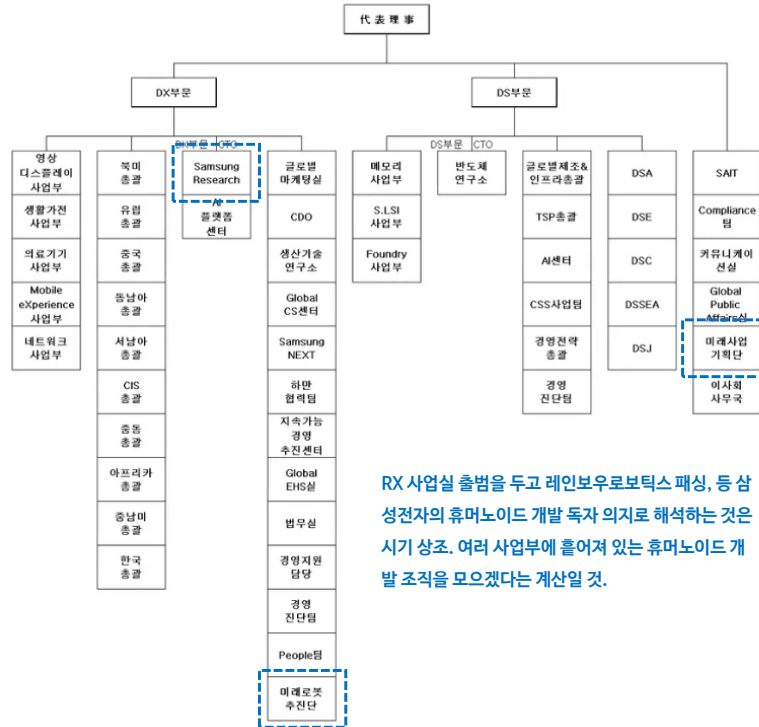
그림7. CMC 리스트, Covered List 등과 같은 행정 명령 단위의 규제 외에 입법의 형태로도 중국 휴머노이드 미국 시장 진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관찰

발의 일자	법령명	주요 내용
25.11	Humanoid Robot Act	연방정부가 중국, 이란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 조달 및 사용을 금지. CFIUS의 로봇 회사 투자 내역 신고 의무 강제
26.02	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	연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적대국 연계 업체가 개발한 무인화 장비 (휴머노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26.03	National Commission on Robotics Act	상무부 산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에 서 국가 안보 차원의 휴머노이드 정책 수립 및 제언 구조 구축

25년부터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이 발의 중인 상황. 이와 같이 중국이 선진 시장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제외된다면, 독일과 일본 등 휴머노이드 관련 개발이 미진한 국가 대비 국내 업체의 경쟁 부각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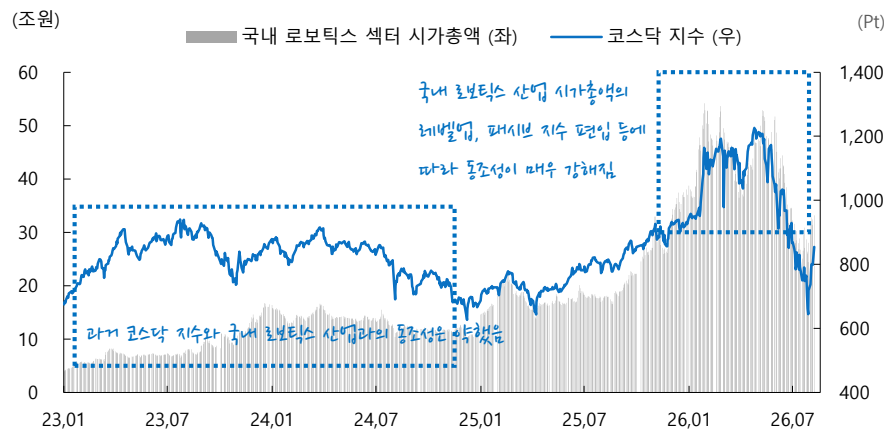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26년1월 기준 삼성전자 조직도: RX 사업실 출범은 흩어져 있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개발 역량을 재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



자료: 삼성전자,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국내 로보틱스 섹터 시가총액 및 코스닥 지수 추이: 섹터 시가총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패시브 수급 영향이 커지며 지수와 동조성 보임.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국내외 주요 휴머노이드 개발 업체 관련 공급망: 핵심 공급망 업체에 주목하되, 여러 시장 플레이어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순환매 과정에서의 여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Boston Dynamics 상장 타임라인, CES 2027에 맞춰 양산 부품 공급망 구축 가속화 될 것. 그룹 차원의 새만금 및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후속 개발 투자 또한 빠른 시일 내 관찰 전망	레인보우로보틱스 중심의 휴머노이드 개발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 웨어러블 로봇 붓핏 공급망에 포함되었거나, 레인보우로보틱스향 부품 공급 레퍼런스 가지는 업체가 주목받을 전망.
현대차그룹	레인보우로보틱스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현대모비스 (Boston Dynamics 액츄에이터 공급 총괄)	에스피지 (레인보우로보틱스향 감속기 공급 레퍼런스)
HL만도 (4족보행로봇용 액츄에이터 개발)	우림피티에스 (삼성중공업향 중대형 기어 공급)
삼현 (액츄에이터 개발 및 현대모비스 협력 부각)	인탑스 (웨어러블 로봇 붓핏 위탁 생산 파트너)
한국피아이엠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향 구동 모듈 공급)	이랜시스 (웨어러블 로봇 붓핏 감속기 공급)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개발, SI 사업 관련 기대감)	삼성SDS (소프트웨어 개발, SI 사업 관련 기대감)
클로봇 (일부 Boston Dynamics 제품 SI 사업자)	씨메스 (레인보우로보틱스향 비전 플랫폼 공급)
LG그룹	글로벌 휴머노이드 선도 업체
LG전자는 자체 액츄에이터 사업을 목표함과 동시에 서비스용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도 고려. 기존 가전, 전장 관련 공급망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개발 상황을 만회할 만회할 것.	Tesla 및 Figure AI 각 업체들의 휴머노이드 제품 양산 임박. 대부분의 선진 시장 업체들이 양산 관련 공급망이 미진하고, 중국 업체가 배제된 상황에서 국내 업체 수혜 가능할 것으로 전망.
LG전자	현대차그룹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로보티즈 (LG전자 지분 6% 보유 및 생산 법인 투자 MOU)	로보티즈 (중국, 북미 휴머노이드 업체향 액츄에이터 공급)
에스피지 (LG사이언스파크와 액츄에이터 공동 개발)	한국피아이엠 (북미 휴머노이드 업체향 초소형 감속기 개발)
하이젠알앤엠 (LG전자 가전 부문의 레퍼런스 활용 기대)	
소프트웨어	
LG CNS (소프트웨어 개발, SI 사업 관련 기대감)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